



樞密公派大宗會 第23次 定期總會

추밀공파대종회(회장 권혁승)는 지난 12월20일11시 한국자유총연맹 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영빈 사무국장은 대의원 105명이 참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협승회장은 성원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였다.

사무국장은 국민의례 시조태사 공개 낭독 후 내빈을 소개하였으며 협승회장은 전국각지에서 많은 대의원께서 참석해주셔서 감사함을 표백하고 종회가 대의원 회비로 운영하는데 지난해 대의원들이 적극 참여해 주어 흑자를 보았으니 승조 정신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권영빈 감사의 감사보고를 승인하고 영빈 국장은 결산보고 후 회장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어서 임원개선에 들어가 임시 의장에 권영환(權寧桓)씨를 추대하여 의사를 맡은바 권호준 대의원은 차기회장을 종회기금마련을 위하여 1천만원을 헌납하는 사람을 추대하려고 했는데 지난 이사회에



12월 20일 자유총연맹회의실에서 추밀공파대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권혁승 회장(원내)을 연임 선출하였다.

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권영위 대의원(문충공회장)은 회장은 문중을 잘 이끌어 갈 사람을 뽑아야지 돈으로 회장을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권공범(淸州)씨는 현 회장을 추천하였는데 호준씨는 개의를 신청하여 전형위원제를 제안하였다. 이에대하여 권학주(원주)씨는 전형위원제는 회칙에 없으니

회칙대로 하자고 하였으며 권병선(창화공종회장)씨는 이문제는 3년 후 3개파에서 논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금번은 협승회장을 재선임한다고 하였다. 회원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권혁승(權赫昇)회장이 7대 회장으로 재 선출되었다.

이어서 감사는 3파에서 1명씩 추천하기로하여 창화공(昌和公)계 권병문(權炳文), 충정공(忠靖公)계

권오돈(權五敦), 정한공(正獻公)계 권인순(權仁淳)씨를 선출하였다.

이어서 재선된 협승회장은 재추대해주셔서 감사하며 열심히 종사하여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종회를 마치고 화기에애한 가운데 오찬을 한 후 산회하였다.

〈권경일, 권범준 기자〉



權正達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壬辰年 새아침 國內外 일백만 門族 族親 여러분 家庭에 幸福이 가득하시기를 祈願합니다.

본인은 門門의 和合과 大同團結을 위해 오로지 一族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協力하고 理解하면서 門事振作에 心血을 기울여 온지 어언 30餘 星霜이 흘렀습니다.

門門은 己丑年 수많은 門中, 族親이 參與하여 郎中公壇所를 始祖님 곁으로 移壇하는 宿願事業을 이루었으며 지난해 6월 中央宗親會와 大宗會 代議員總會에서 統合을 決議하여 安東權氏大宗院이 發足하게 되었으니 門門歷史의 한 획을 그은 바 입니다. 이제 우리는 大同團結과 萬歲 昌榮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門門은 하나가 되어 組織을 活性化 하고자 協議體를 構成하고 보다 能動的이며 發展적으로 活動해 가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宗親會長協議會를 중심으로 地域間 발전모델을 傳播하여 타의 龜鑑이 되도록 事業

新年辭 權門萬歲榮

을 活性化 하고 派宗會長協議會는 後學啓導를 위한 倫理教育을 強化하여 後孫들이 道德적으로 社會의 模範이 되도록 組織을 活性化 함으로써 權門이 隆盛토록 새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族親들께서는 發展의 宗事に 參與할 수 있으며 派宗會와 地域宗親會를 통하여 意思가 集約되고 또 大宗院에 직접 意思를 反映할 수 있습니다.

百萬族親의 意思 窓口는 安東權氏宗報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提案해 주시는 기고문은 權門發展의 基礎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新年부터는 宗報를 刷新코자 하니 많은 參與를 바랍니다. 아울러 派宗會는 各支派宗中別로 先賢들의 遺稿를 發掘하여 送稿해주시고 地域宗親會는 宗親會의 美談을 競爭의으로 送稿해 주신다면 宗報는 權門의 淸한 寶書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意思疏通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開放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安東權氏宗報에 掲載되어 있으니 많이 活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가을 大宗院 發足 처음으로 奉行한 太師公과 郎中公 享祭에는 500여명의 많은 族親

들이 參與하여 崇祖精神과 뿌리 의식을 鼓吹시킨바 있으니 금년에는 京鄕 各地에서 더 많은 族親들이 參與하시기를 기대합니다. 世人들이 吾門을 兩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四始를 자랑하지만 무엇보다도 1千年前의 始祖님 實墓가 精神文化의 고장인 安東에 계시고 始祖님의 陰德을 받은 수많은 先賢들께서 麗朝와 朝鮮朝에서 盡忠輔國하고 結草報恩하신 結果다 할 것입니다.

世上이 어지러워도 吾門에는 忠孝와 敬老孝親思想의 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마음가짐을 올곧게 하며 아버지 섬김에 남다르다 하였습니다. 지난해 영전에서 개최한 全國靑壯年體典에 3천여명의 많은 族親이 參與하여 흥겨운 잔치를 열면서 歡喜와 함께 敬老精神을 涵養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光州廣域市에서 開催하는데 더 많은 族親들이 參與하고 아울러 매년 4월14일 奉行되는 衡州山幸州大捷記念祭에 많이 參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紀 1083년 새해 國內外 族親 여러분 모두 幸福하시고 福 많이 받으시고 所願成就하시기를 祈願합니다.

■ 신년취호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壬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큰 德運이 安東權氏門中에 到來하여 大道가 열리고 이루는 일마다, 가는곳마다 權門大族이 萬事大通하시기를 祈願하며 새해의 吉運을 祝願합니다.

壬辰年 新元
樞密公波 35世 五星敢題

陰聲鄉校敎掌議
■ 文景公, 諒平公 宗中會長
■ 蘇伊面 住民自治센터 書藝敎室운영(現)



地域宗親會長協議會 任員會議

지역종친회장협의회(회장 권길상,부산종친회장,대종원부총재)는 임원회의를 12월16일 12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제이스호텔 자미정에서 개최하였다. 협의회 임원은 9명으로서 이날 8명이 참석하였으며 권영갑 간사(수원종친회장)는 전국 지역종친회는 대종원에 등록되고 연중 활동을 하고 있는 63개 종친회법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권길상회장은 협의회에 새로

구성된 임원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원로에 대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으며 지역종친회의 발전을 기하고 상호 연계하여 대종원의 발전에 기여토록하자고 하였다.

회의에 들어가 권영장 영주종친회장은 먼저 협의회 목표표 세우고 그 목표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권영성 영천종친회장은 협의회가 하는 일은 춘추향사와 전국청장년체전에 관심을 갖자고 하였다. 영창회장과 권오윤

12월 16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지역종친회장협의회 임원회의 모습

강릉종친회장은 종친회간 친목을 도모하려면 자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추향시 정기총회를 하고 춘향과 전국체전시 임시총회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길상회장은 명년 봄에 임시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토록 하겠으며 광주에서 열리는 제전에 종친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모임을 갖자고 하였다. 모임을 자주 가지면 비용발생문제가 따르므로 권호준 대전종친회장은 최소의 비용을 지출하여 협의회 기금에 여유를 갖자고 하였다.

따라서 비용지출은 춘추향사와 전국체전에 한하기로 하고 기금마련에 협의회장이 200만원 부회장 등 임원이 50만원, 지역종친회에서

10만원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영창회장은 3년으로 해야지 종친회장임기가 2년으로서 임기가 끝나면 임원직을 후임종친회장에게 위임한다면 협의회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니 협의회 발전에 저해된다고 하여 연구 검토하되 창립 임원은 3년으로 하기로 잠정합의하고 임시총회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會長 權吉相(부산) 副會長 權鎭俊(대전), 權學成(영천), 權致鎭(산청), 權五潤(강릉), 權寧昌(영주), 監事 權在珠(안동), 權承九(마포), 幹事 權寧甲(수원)

〈편〉

新春詩 첫 소망

청하 권대욱

거룩한 壬辰의 첫 하늘이시여 이 소망을 거두어주소서

위대한 땅, 붉은 땅에서 태초의 탄생 님은 축복으로 장엄한 壬辰의 첫 미소가 겨레들이들의 가슴에 검은 龍으로 응비하고 침묵해온 여명의 장막을 열고 펼쳐진 새 다짐이 흐르는 첫날

얼음 녹아 흐르는 골짜기 샘이 수 없는 갈림과 난관을 거듭하여 머무름 없이 흘러온 이 땅의 역사 삼천리 방방곡곡 겨레들이의 가슴에서 발원한 임진의 새역사는 오대양 육대주를 항하여

숨 막혔던 정적을 다시 일깨우고 뒤편은 역사로 장엄할 오늘 이 소망을 여태 흘러왔던 오천 년, 이 땅에 한뼘 한뼘

아로새겨온 비밧한 기억은 모두 덮어두고 흐르게 하소서 삼한 일통의 첫 역사 이어온 위대한 내 할아버지의 땅 위에서 權門의 심장에 흐르는 피를 달려 여기 응비해야 할 역사의 현장도 변영과 평화, 풍요와 영광이 흘러가게 하소서

거룩한 하늘이시여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그러할 것이니 손에 손잡고 발맞추어 같이 일어나 뛰어가게 하소서

태초의 날처럼 위대한 탄생의 첫날처럼 겨레들이의 영광을 위한 초석 되려 다짐하는 응비하는 임진의 첫날부터 흑룡을 타고날게 하소서 바람과 구름과 별과 달의 미소를 햇살처럼 비추게 하소서 나의 순결한 겨레들이의 가슴에 비추게 하소서

거룩한 하늘이시여 겨레들이의 소박한 희망을 거두어 주소서 임진의 첫 다짐을 거두어 주소서.

安東權氏宗報

宗是: 崇祖理念確立・愛族思想鼓吹
後學啓導寄與・社會倫理培養

발행인 權正達 편집인 權景哲 인쇄인 權寧雄

발행장소 : 安東權氏大宗院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安東事務所: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 (054) 854-2257
택시요 연락소: (054) 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jung@yahoo.co.kr / andongkwon@paran.com

編輯委員 권계동, 권오복, 권태하

記 者 권범준, 권오인, 권희세, 권경일

자문위원 : 권중달 권영환 권태하 권영섭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종친회, 대종회)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중앙종친회) 농 협 076-02-247343

증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증보사
010108-01-000369